



인물로 본 환경야사(66)

환경신문 始發의 주역

이종기 회장 -中-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2. 스케일 큰 경상도 남자

이종기 사장은 스케일이 큰 경상도 남자다. 아니, '경상도 사내'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피부적인 표현일 것이다.

보통,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 살게 되면, 고향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이종기 사장은 사투리를 버리지는커녕, 더 짙게 사용한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어투를 고치며 사는 것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래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말투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시원시원하다.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종기 사장의 인간성이 시원한 것이다.

몇 년 전, 무슨 일로 이종기 사장과 어떤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전화로 부탁하고, 쉽게 승낙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문서로 약속을 해야겠기에, 계약서를 준비해 전화를 했다.

- 이 사장, 오늘 시간이 어떻습니까. 만났으면 하는데...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데... 그런데 왜요(왜요)?"

- 며칠 전, 전화통화로 약속한 것, 계약서를 준비했는데...

"계약서요? 우리가 그런 사입니까? 계약서를 써야 할 사이라면, 차 뿌립시다(치워 버립시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 말로 약속을 했으면 되었지, 문서가 뭐 말라 죽은 개뻐 다귀냐는 것이다.

매사에 그렇게 시원시원하다. 말 한마디면, '딱' 이다. 두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다. 뭘 부탁하면, 일언지하(一言之下)로 "그럼 해 보입시다(봅시다)"면 끝이다. 크지 않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강단이 나오는지, 이종기 사장을 만날 때마다 궁금해진다.

80년대 초, 필자는 '경실환경신문'에 칼럼을 연재했었다. 당시, 젊었던 필자는 환경칼럼에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대입해, 비판적인 칼을 휘둘렀다. 말하자면 정권에 아슬아슬한 글을 써 갈겼다.

글이 문제가 되면, 필자뿐만 아니라, 신문의 발행인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발행인인 이종기 사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원고를 넘기면서, '정부정책을 좀 깎다(비판) 고 말하면, "그야, 박선생 마음이죠. 마음대로 하이소"라며, 원고를 사전에 보거나, 내용을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신뢰라고 간단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신문과 필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신문을 이끈 것이다.



▲ 건설환경신문사 이종기 사장



〈계속〉